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고등학생의견조사 결과보고**

2008년 4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산하기구
참교육 연구소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0교시’, ‘우열반’, ‘야간 보충수업’, ‘사설모의고사’ 등을 허용하는 이른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떤 의견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II. 조사의 내용

1. 학생들의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정도

2.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행동이나 육체적, 신체적 건강 상태

- | | |
|-----------------------|---------------------|
| 1) 학생들간 폭언, 말다툼 경험 유무 | 7) 자살 충동 유무 |
| 2) 가족간 폭언, 말다툼 경험 유무 | 8) 정신과 방문 생각 유무 |
| 3) 흡연 경험 유무 | 9) 건강약화 유무 |
| 4) 음주 경험 유무 | 10) 짜절감, 의욕상실 경험 유무 |
| 5) 자퇴 충동 유무 | 11) 이유 없이 화난 경험 유무 |
| 6) 가출 충동 유무 | |

3. 학교자율화조치가 각 학교에서 실행될지에 대한 의견

- | | |
|-------------|---------------|
| 1) 0교시수업 실시 | 3) 야간 보충수업 실시 |
| 2) 우열반이 편성 | 4) 사설 모의고사 실시 |

4.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

- | | |
|--------------|---------------|
| 1) 0교시 수업 허용 |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
| 2) 우열반 허용 |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

5. 정책의 효과등에 대한 의견에 동의여부

- 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 2) 사교육비가 감소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 3) 학교생활에 즐거움 증가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 4) 학교 수업분위기 향상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 5) 학교가 학원화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 6) 학생들 건강약화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 7) 입시경쟁교육 심화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 8) 학업스트레스 증가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 9)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장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6. 정책의 학력향상 도움여부

- | | |
|--------------|---------------|
| 1) 0교시 수업 허용 |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
| 2) 우열반 허용 |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

7. 앞으로 정책시행 방향에 대한 의견

8.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의견

III.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서울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조사기간	2008년 4월17일
표본크기	1275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pm 3.1\%P$

IV.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 분 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V. 표본의 특성

		빈도	%
합계		1275	100.0%
성별	남자	699	54.8%
	여자	576	45.2%
성적	상	247	20.0%
	중	784	63.4%
	하	206	16.7%
경제	상	291	23.5%
	중	855	69.0%
	하	94	7.6%

V. 조사 결과 개요

1. 고교생 86.4%,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매우 크다’ 35.9%, ‘큰 편이다’ 50.5%로 86.4%의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없다’는 12.3%, ‘전혀없다’는 1.3%로 13.6%만이 스트레스가 없다고 답변.

2.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행동이나 육체적, 신체적 건강 상태

고교생 2/3가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감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자퇴를 고민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1/3은 가출을 고민해보았고, 5명중 1명은 자살충동까지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1)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 간 폭언이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36%, ‘아니다’ 64.0%였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입시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다.
- 2)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간 폭언 말다툼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학생들 간에 폭언, 말다툼 경험보다 17.6%가 높았다. ‘그렇다’ 53.6%, ‘아니다’ 46.5%로 학생들의 반 이상이 집에서 폭언이나 말다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흡연 경험 유무에 대해 ‘그렇다’ 14.0%, ‘아니다’ 86.5%. 남학생의 경우 20.2%로 여학생 6.4%다 높았다. 성적수준 ‘하’의 경우가 24.0%로 ‘상’ 13.1%, ‘중’ 11.3%보다 높았다.
- 4) 음주 경험 유무에 대해 ‘그렇다’ 26.8%, ‘아니다’ 73.2%. 남학생은 33.3%, 여학생은 18.8%.
- 5)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다에 대해 ‘그렇다’ 53.6%, ‘아니다’ 46.5%였다. 성적 하 의 경우 67.6%, 경제수준 하의 경우 67.7%로 성적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자퇴충동이 높았다.
- 6) 가출 충동 유무에 대해 ‘그렇다’ 34.9%, ‘아니다’ 65.1%
- 7)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 23.8% ‘아니다’ 76.2%. 2006년 5월, 전국 고교생 3166명을 대상으로 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20.2%”)보다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빈도가 약간 높아졌다.
- 8) 정신과에 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19.7%, ‘아니다’ 80.3%.
- 9) 입시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적이 있다는 응답이 37.0%. 성적이 높을수록(43.9%),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45.5%)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을 해친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10) 74.8%가 입시스트레스로 좌절감, 의욕상실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낮을수록 (80.4%), 경제수준이 낮을수록(83.9%)로 높게 나타났다.

11) 이유 없이 화난 경험이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가 55.3%, '아니다'가 44.7%. 경제수준 '하'인 경우, 64.5%로 더 10%정도 더 높았다.

3. 0교시, 우열반 등이 자기학교에서 실행될지 여분에 대한 판단

고교생들의 절반가까이 자기 학교에서 우열반 편성, 야간보충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1) 0교시수업 실시, '그렇다' 30%, '아니다' 63.8%, '이미 실시하고 있다' 6.2%
- 2) 우열반이 편성, '그렇다' 43.3%, '아니다' 45.6%, '이미 실시하고 있다' 11.1%
- 3) 야간 보충수업 실시, '그렇다' 38.4%, '아니다' 42.6%, '이미 실시하고 있다' 18.9%
- 4) 사설 모의고사 실시, '그렇다' 48.3%, '아니다' 48.7%, '이미 실시하고 있다' 2.9%

4. 학교자율화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

고교생들의 절대 다수는 0교시, 우열반, 야간보충수업 허용을 반대하여였다., 사설모의고사 허용 반대도 과반수가 넘었다.

- 1) 0교시 수업 허용, 찬성 14%, 반대 76%
- 2) 우열반 허용, 찬성 32%, 반대 68%
-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찬성 38.6%, 반대 61.5%
-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찬성 44.9%, 반대 55.1%

5.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의견에 동의 여부

이번 정책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학생은 26.3%에 불과했고 대부분 입시경쟁교육이 강화되어(84.9%) 사교육비가 증가하고(74.8),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여(89.5%) 학교생활의 즐거움이 없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었다.

- 1)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에 동감하는 학생은 26.3%, 비동감 75.7%

- 2)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란 물음에 동감하지 않는 학생이 74.8%, 동감 25.2%
- 3) '학교생활에 즐거움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 학생은 11.6%, 동감하지 않음 88.4%.
- 4) '학교 수업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란 판단에도 78.7%가 동의하지 않았다.
- 5) '학교가 학원처럼 될 것이다'는 의견에는 59.7%가 동의.
- 6) '건강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에 73.2%가 동의
- 7) '입시경쟁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 84.9%가 동의
- 8) '학업스트레스가 증가', 89.5%가 동의
- 9)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79.7%가 동의

6. 정책의 학력향상 도움여부

학생들 대다수는 이번 규제철폐 정책이 학력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었다. 0교사의 경우 78.2%가 우열반 허용의 경우 6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사설모의고사 허용의 경우 54.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험을 자주보는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1) 0교시 수업 허용, '도움이 되지 않는다' 78.2%
- 2) 우열반 허용, '도움이 되지 않는다' 63.2%
-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도움이 되지 않는다' 53.1%
-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도움이 된다" 54.6%

7. 고교생 83.4%, "교과부 계획 취소해야"

고교생의 대부분인 83.4%가 '교과부 계획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6.6%에 지나지 않았다.

VI. 통계표

1. 현재 학생들의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정도

		1. 지금 학생이 체감하는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큰 편이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442	35.9%	622	50.5%	152	12.3%	16	1.3%
성별	남자	233	34.6%	326	48.4%	100	14.9%	14	2.1%
	여자	209	37.4%	296	53.0%	52	9.3%	2	.4%
성적	상	105	44.1%	101	42.4%	28	11.8%	4	1.7%
	중	255	33.6%	415	54.7%	81	10.7%	7	.9%
	하	65	33.2%	86	43.9%	40	20.4%	5	2.6%
경제	상	129	45.4%	112	39.4%	34	12.0%	9	3.2%
	중	252	30.7%	462	56.2%	103	12.5%	5	.6%
	하	45	50.6%	30	33.7%	12	13.5%	2	2.2%

2. 최근 1년간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행동 등에 대한 경험

1) 학생들간 폭언, 말다툼 경험 유무

		2-1.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456	36.0%	809	64.0%
성별	남자	316	45.7%	376	54.3%
	여자	140	24.4%	433	75.6%
성적	상	106	43.3%	139	56.7%
	중	256	32.8%	524	67.2%
	하	83	40.9%	120	59.1%
경제	상	130	45.1%	158	54.9%
	중	270	31.8%	580	68.2%
	하	45	48.4%	48	51.6%

2) 가족간 폭언, 말다툼 경험 유무

		2-2.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에게 폭언을 하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678	53.5%	589	46.5%
성별	남자	357	51.5%	336	48.5%
	여자	321	55.9%	253	44.1%
성적	상	140	57.1%	105	42.9%
	중	411	52.6%	370	47.4%
	하	114	55.9%	90	44.1%
경제	상	158	54.9%	130	45.1%
	중	453	53.2%	399	46.8%
	하	55	59.1%	38	40.9%

3) 흡연 경험 유무

		2-4.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를 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339	26.8%	927	73.2%
성별	남자	231	33.3%	462	66.7%
	여자	108	18.8%	465	81.2%
성적	상	69	28.2%	176	71.8%
	중	178	22.8%	602	77.2%
	하	76	37.3%	128	62.7%
경제	상	99	34.4%	189	65.6%
	중	195	22.9%	656	77.1%
	하	29	31.2%	64	68.8%

4) 음주 경험 유무

		2-3.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핀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178	14.0%	1089	86.0%
성별	남자	141	20.3%	552	79.7%
	여자	37	6.4%	537	93.6%
성적	상	32	13.1%	213	86.9%
	중	88	11.3%	693	88.7%
	하	49	24.0%	155	76.0%
경제	상	51	17.7%	237	82.3%
	중	103	12.1%	749	87.9%
	하	15	16.1%	78	83.9%

5) 자퇴 충동 유무

		2-6.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442	34.9%	825	65.1%
성별	남자	248	35.8%	445	64.2%
	여자	194	33.8%	380	66.2%
성적	상	80	32.7%	165	67.3%
	중	248	31.8%	533	68.2%
	하	101	49.5%	103	50.5%
경제	상	98	34.0%	190	66.0%
	중	291	34.2%	561	65.8%
	하	40	43.0%	53	57.0%

6) 가출 충동 유무

		2-7.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301	23.8%	966	76.2%
성별	남자	155	22.4%	538	77.6%
	여자	146	25.4%	428	74.6%
성적	상	62	25.3%	183	74.7%
	중	173	22.2%	608	77.8%
	하	56	27.5%	148	72.5%
경제	상	77	26.7%	211	73.3%
	중	188	22.1%	664	77.9%
	하	27	29.0%	66	71.0%

7) 자살 충동 유무

		2-5.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662	52.2%	605	47.8%
성별	남자	358	51.7%	335	48.3%
	여자	304	53.0%	270	47.0%
성적	상	111	45.3%	134	54.7%
	중	387	49.6%	394	50.4%
	하	138	67.6%	66	32.4%
경제	상	147	51.0%	141	49.0%
	중	427	50.1%	425	49.9%
	하	63	67.7%	30	32.3%

8) 정신과 방문 생각 유무

		2-8.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에 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250	19.7%	1016	80.3%
성별	남자	114	16.5%	579	83.5%
	여자	136	23.7%	437	76.3%
성적	상	51	20.9%	193	79.1%
	중	139	17.8%	642	82.2%
	하	52	25.5%	152	74.5%
경제	상	55	19.1%	233	80.9%
	중	153	18.0%	699	82.0%
	하	33	35.9%	59	64.1%

9) 건강악화 유무

		2-9.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친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469	37.0%	797	63.0%
성별	남자	254	36.7%	438	63.3%
	여자	215	37.5%	359	62.5%
성적	상	107	43.9%	137	56.1%
	중	270	34.6%	511	65.4%
	하	78	38.0%	127	62.0%
경제	상	131	45.5%	157	54.5%
	중	288	33.8%	564	66.2%
	하	35	37.6%	58	62.4%

10) 좌절감, 의욕상실 경험 유무

		2-10.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의욕상실에 빠진 적이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948	74.8%	319	25.2%
성별	남자	471	68.0%	222	32.0%
	여자	477	83.1%	97	16.9%
성적	상	186	75.9%	59	24.1%
	중	572	73.2%	209	26.8%
	하	164	80.4%	40	19.6%
경제	상	214	74.3%	74	25.7%
	중	632	74.2%	220	25.8%
	하	78	83.9%	15	16.1%

11) 이유 없이 화난 경험 유무

		2-11.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이유 없이 화가 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빈도	%	빈도	%
합계		700	55.3%	566	44.7%
성별	남자	357	51.6%	335	48.4%
	여자	343	59.8%	231	40.2%
성적	상	134	54.9%	110	45.1%
	중	438	56.2%	342	43.8%
	하	111	54.1%	94	45.9%
경제	상	157	54.5%	131	45.5%
	중	466	54.8%	385	45.2%
	하	60	64.5%	33	35.5%

3. 0교시, 우열반 편성 등이 자신의 학교에서 시행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0교시 수업 실시 예상

		3-1. 0교시수업 실시 될 것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이미 실시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380	30.0%	808	63.8%	79	6.2%
성별	남자	205	29.5%	457	65.9%	32	4.6%
	여자	175	30.5%	351	61.3%	47	8.2%
성적	상	81	33.2%	140	57.4%	23	9.4%
	중	236	30.1%	498	63.6%	49	6.3%
	하	51	25.0%	146	71.6%	7	3.4%
경제	상	77	26.7%	186	64.6%	25	8.7%
	중	265	31.0%	542	63.5%	47	5.5%
	하	26	28.3%	59	64.1%	7	7.6%

2) 우열반 편성 예상

		3-2. 우열반이 편성 될 것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이미 실시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548	43.3%	577	45.6%	140	11.1%
성별	남자	294	42.4%	329	47.5%	70	10.1%
	여자	254	44.4%	248	43.4%	70	12.2%
성적	상	113	46.7%	99	40.9%	30	12.4%
	중	338	43.2%	355	45.3%	90	11.5%
	하	78	38.2%	111	54.4%	15	7.4%
경제	상	120	42.0%	136	47.6%	30	10.5%
	중	374	43.8%	384	45.0%	96	11.2%
	하	37	40.2%	46	50.0%	9	9.8%

3) 야간보충수업 실시 예상

		3-3. 야간 보충수업이 실시 될 것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이미 실시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487	38.4%	540	42.6%	240	18.9%
성별	남자	248	35.8%	317	45.7%	128	18.5%
	여자	239	41.6%	223	38.9%	112	19.5%
성적	상	92	37.9%	106	43.6%	45	18.5%
	중	309	39.5%	318	40.6%	156	19.9%
	하	72	35.1%	98	47.8%	35	17.1%
경제	상	101	35.1%	122	42.4%	65	22.6%
	중	335	39.2%	360	42.2%	159	18.6%
	하	36	39.1%	42	45.7%	14	15.2%

4) 사설모의고사 실시 예상

		3-4. 사설 모의고사를 자주 보게 될 것이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이미 실시하고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612	48.3%	617	48.7%	37	2.9%
성별	남자	322	46.5%	340	49.1%	31	4.5%
	여자	290	50.6%	277	48.3%	6	1.0%
성적	상	126	51.9%	112	46.1%	5	2.1%
	중	383	48.9%	376	48.0%	24	3.1%
	하	77	37.7%	119	58.3%	8	3.9%
경제	상	133	46.3%	146	50.9%	8	2.8%
	중	410	48.0%	420	49.2%	24	2.8%
	하	43	46.7%	44	47.8%	5	5.4%

4. 0교시, 우열반 허용 등에 대한 찬반 의견

1) 0교시 수업 허용 찬반

		4-1. 0교시 수업 허용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50	3.9%	128	10.1%	286	22.5%	807	63.5%
성별	남자	28	4.0%	69	9.9%	156	22.4%	444	63.7%
	여자	22	3.8%	59	10.3%	130	22.6%	363	63.2%
성적	상	14	5.7%	32	13.0%	50	20.2%	151	61.1%
	중	28	3.6%	77	9.8%	180	23.0%	497	63.6%
	하	5	2.4%	18	8.8%	45	22.0%	137	66.8%
경제	상	10	3.4%	28	9.7%	54	18.6%	198	68.3%
	중	34	4.0%	87	10.2%	208	24.4%	525	61.5%
	하	3	3.2%	11	11.8%	15	16.1%	64	68.8%

2) 우열반 허용 찬반

		4-2. 우열반 허용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07	8.4%	299	23.5%	304	23.9%	560	44.1%
성별	남자	72	10.3%	182	26.1%	152	21.8%	290	41.7%
	여자	35	6.1%	117	20.4%	152	26.5%	270	47.0%
성적	상	51	20.7%	65	26.4%	30	12.2%	100	40.7%
	중	43	5.5%	189	24.2%	200	25.6%	350	44.8%
	하	10	4.9%	37	18.0%	57	27.8%	101	49.3%
경제	상	34	11.7%	60	20.7%	43	14.8%	153	52.8%
	중	62	7.3%	209	24.5%	228	26.7%	355	41.6%
	하	8	8.7%	22	23.9%	19	20.7%	43	46.7%

3) 야간보충수업 허용 찬반

		4-3. 야간 보충수업 허용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91	7.2%	398	31.4%	285	22.5%	495	39.0%
성별	남자	53	7.6%	201	28.9%	155	22.3%	286	41.2%
	여자	38	6.6%	197	34.3%	130	22.6%	209	36.4%
성적	상	20	8.1%	70	28.5%	55	22.4%	101	41.1%
	중	55	7.1%	263	33.7%	168	21.5%	294	37.7%
	하	15	7.3%	54	26.2%	47	22.8%	90	43.7%
경제	상	24	8.3%	76	26.2%	56	19.3%	134	46.2%
	중	58	6.8%	282	33.1%	200	23.4%	313	36.7%
	하	8	8.7%	29	31.5%	17	18.5%	38	41.3%

4) 사설모의고사 허용 찬반

		4-4. 사설 모의고사 허용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72	13.6%	397	31.3%	245	19.3%	454	35.8%
성별	남자	105	15.1%	210	30.3%	136	19.6%	243	35.0%
	여자	67	11.7%	187	32.6%	109	19.0%	211	36.8%
성적	상	49	19.9%	85	34.6%	28	11.4%	84	34.1%
	중	103	13.2%	245	31.4%	162	20.8%	270	34.6%
	하	12	5.9%	52	25.4%	51	24.9%	90	43.9%
경제	상	44	15.2%	85	29.3%	37	12.8%	124	42.8%
	중	113	13.3%	274	32.2%	183	21.5%	282	33.1%
	하	7	7.6%	26	28.3%	21	22.8%	38	41.3%

5. 정책의 효과등에 대한 의견에 동의여부

1) 학교정상화에 기여

		5-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68	5.4%	265	20.9%	468	37.0%	465	36.7%
성별	남자	52	7.5%	147	21.2%	238	34.2%	258	37.1%
	여자	16	2.8%	118	20.7%	230	40.3%	207	36.3%
성적	상	18	7.4%	49	20.1%	83	34.0%	94	38.5%
	중	33	4.2%	167	21.4%	309	39.6%	271	34.7%
	하	14	6.8%	46	22.4%	67	32.7%	78	38.0%
경제	상	16	5.6%	64	22.3%	93	32.4%	114	39.7%
	중	37	4.3%	184	21.6%	339	39.8%	292	34.3%
	하	12	12.9%	16	17.2%	29	31.2%	36	38.7%

2) 사교육비 감소

		5-2.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01	8.0%	219	17.2%	307	24.2%	643	50.6%
성별	남자	66	9.5%	136	19.5%	165	23.7%	329	47.3%
	여자	35	6.1%	83	14.5%	142	24.7%	314	54.7%
성적	상	14	5.7%	37	15.1%	58	23.7%	136	55.5%
	중	52	6.6%	129	16.5%	204	26.1%	398	50.8%
	하	29	14.1%	47	22.9%	40	19.5%	89	43.4%
경제	상	25	8.6%	45	15.5%	63	21.7%	157	54.1%
	중	54	6.3%	155	18.1%	225	26.3%	420	49.2%
	하	16	17.4%	15	16.3%	16	17.4%	45	48.9%

3) 학교생활의 즐거움 증가

		5-3. 학교생활에 즐거움이 커질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46	3.6%	101	8.0%	342	26.9%	781	61.5%
성별	남자	36	5.2%	64	9.2%	182	26.1%	414	59.5%
	여자	10	1.7%	37	6.4%	160	27.9%	367	63.9%
성적	상	11	4.5%	19	7.8%	58	23.7%	157	64.1%
	중	19	2.4%	56	7.2%	225	28.7%	483	61.7%
	하	15	7.3%	23	11.2%	48	23.4%	119	58.0%
경제	상	16	5.5%	24	8.3%	70	24.2%	179	61.9%
	중	20	2.3%	69	8.1%	247	28.9%	518	60.7%
	하	9	9.7%	5	5.4%	17	18.3%	62	66.7%

4) 수업분위기 향상

		5-4. 학교 수업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71	5.6%	200	15.7%	414	32.6%	585	46.1%
성별	남자	50	7.2%	122	17.5%	211	30.3%	313	45.0%
	여자	21	3.7%	78	13.6%	203	35.4%	272	47.4%
성적	상	20	8.2%	48	19.6%	69	28.2%	108	44.1%
	중	35	4.5%	114	14.6%	279	35.6%	355	45.3%
	하	15	7.3%	32	15.6%	55	26.8%	103	50.2%
경제	상	21	7.3%	41	14.2%	91	31.5%	136	47.1%
	중	37	4.3%	143	16.7%	288	33.7%	386	45.2%
	하	12	12.9%	11	11.8%	26	28.0%	44	47.3%

5) 학교의 학원화

		5-5. 학교가 학원처럼 될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370	29.1%	388	30.6%	275	21.7%	237	18.7%
성별	남자	201	28.9%	213	30.6%	139	20.0%	143	20.5%
	여자	169	29.4%	175	30.5%	136	23.7%	94	16.4%
성적	상	77	31.3%	77	31.3%	49	19.9%	43	17.5%
	중	230	29.4%	244	31.2%	167	21.3%	142	18.1%
	하	57	27.9%	54	26.5%	51	25.0%	42	20.6%
경제	상	102	35.3%	74	25.6%	56	19.4%	57	19.7%
	중	221	25.9%	281	32.9%	200	23.4%	152	17.8%
	하	41	44.1%	21	22.6%	14	15.1%	17	18.3%

6) 학생 건강 증진

		5-6.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 질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511	40.2%	420	33.0%	227	17.9%	113	8.9%
성별	남자	269	38.6%	216	31.0%	131	18.8%	81	11.6%
	여자	242	42.2%	204	35.5%	96	16.7%	32	5.6%
성적	상	96	39.0%	81	32.9%	42	17.1%	27	11.0%
	중	316	40.4%	268	34.2%	136	17.4%	63	8.0%
	하	87	42.4%	56	27.3%	41	20.0%	21	10.2%
경제	상	129	44.6%	76	26.3%	55	19.0%	29	10.0%
	중	322	37.7%	311	36.4%	149	17.4%	72	8.4%
	하	48	51.1%	22	23.4%	15	16.0%	9	9.6%

7) 입시영재교육의 심화

		5-7. 입시경쟁교육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775	61.0%	304	23.9%	114	9.0%	77	6.1%
성별	남자	392	56.2%	173	24.8%	67	9.6%	65	9.3%
	여자	383	66.8%	131	22.9%	47	8.2%	12	2.1%
성적	상	158	64.2%	52	21.1%	23	9.3%	13	5.3%
	중	481	61.4%	190	24.3%	65	8.3%	47	6.0%
	하	119	58.3%	50	24.5%	20	9.8%	15	7.4%
경제	상	184	63.7%	58	20.1%	26	9.0%	21	7.3%
	중	507	59.4%	218	25.5%	78	9.1%	51	6.0%
	하	67	72.0%	18	19.4%	6	6.5%	2	2.2%

8) 학업스트레스의 증가

		5-8.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874	68.8%	263	20.7%	77	6.1%	57	4.5%
성별	남자	439	63.0%	160	23.0%	52	7.5%	46	6.6%
	여자	435	75.8%	103	17.9%	25	4.4%	11	1.9%
성적	상	166	67.5%	53	21.5%	17	6.9%	10	4.1%
	중	547	69.9%	159	20.3%	43	5.5%	34	4.3%
	하	139	67.8%	41	20.0%	14	6.8%	11	5.4%
경제	상	203	70.2%	52	18.0%	19	6.6%	15	5.2%
	중	576	67.4%	188	22.0%	53	6.2%	37	4.3%
	하	74	78.7%	16	17.0%	2	2.1%	2	2.1%

9) 학생간 위화감의 증대

		5-9.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커질 것이다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643	50.7%	368	29.0%	187	14.7%	71	5.6%
성별	남자	313	45.0%	211	30.4%	115	16.5%	56	8.1%
	여자	330	57.5%	157	27.4%	72	12.5%	15	2.6%
성적	상	131	53.5%	63	25.7%	39	15.9%	12	4.9%
	중	393	50.3%	234	29.9%	111	14.2%	44	5.6%
	하	104	50.7%	58	28.3%	31	15.1%	12	5.9%
경제	상	162	56.3%	70	24.3%	41	14.2%	15	5.2%
	중	408	47.8%	263	30.8%	134	15.7%	48	5.6%
	하	58	61.7%	24	25.5%	8	8.5%	4	4.3%

6. 정책의 학력향상 도움여부

1) 0교시 허용

		6-1. 학력향상에 도움 - 0교시 허용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52	4.1%	224	17.7%	376	29.7%	614	48.5%
성별	남자	31	4.5%	123	17.7%	186	26.8%	353	50.9%
	여자	21	3.7%	101	17.6%	190	33.2%	261	45.5%
성적	상	15	6.1%	40	16.3%	67	27.2%	124	50.4%
	중	25	3.2%	144	18.5%	237	30.5%	372	47.8%
	하	8	3.9%	39	19.0%	57	27.8%	101	49.3%
경제	상	13	4.5%	43	14.9%	73	25.3%	160	55.4%
	중	31	3.7%	159	18.7%	264	31.1%	395	46.5%
	하	3	3.2%	21	22.3%	26	27.7%	44	46.8%

2) 우열반 허용

		6-2. 학력향상에 도움 - 우열반 허용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97	7.7%	369	29.2%	310	24.5%	489	38.7%
성별	남자	63	9.1%	219	31.6%	156	22.5%	254	36.7%
	여자	34	5.9%	150	26.2%	154	26.9%	235	41.0%
성적	상	42	17.1%	75	30.6%	38	15.5%	90	36.7%
	중	41	5.3%	226	29.0%	217	27.9%	294	37.8%
	하	13	6.3%	48	23.4%	50	24.4%	94	45.9%
경제	상	28	9.7%	76	26.3%	54	18.7%	131	45.3%
	중	61	7.2%	248	29.2%	232	27.3%	308	36.3%
	하	6	6.5%	29	31.2%	19	20.4%	39	41.9%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6-3. 학력향상에 도움 - 야간 보충수업 허용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11	8.8%	483	38.2%	306	24.2%	365	28.9%
성별	남자	60	8.7%	247	35.7%	168	24.3%	217	31.4%
	여자	51	8.9%	236	41.2%	138	24.1%	148	25.8%
성적	상	25	10.2%	82	33.5%	57	23.3%	81	33.1%
	중	66	8.5%	314	40.4%	190	24.5%	207	26.6%
	하	18	8.7%	74	35.9%	47	22.8%	67	32.5%
경제	상	25	8.7%	95	32.9%	61	21.1%	108	37.4%
	중	72	8.5%	343	40.4%	212	25.0%	222	26.1%
	하	11	11.8%	34	36.6%	23	24.7%	25	26.9%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6-4. 학력향상에 도움 - 사설 모의고사 허용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84	14.5%	507	40.1%	221	17.5%	353	27.9%
성별	남자	102	14.7%	269	38.9%	115	16.6%	206	29.8%
	여자	82	14.3%	238	41.5%	106	18.5%	147	25.7%
성적	상	52	21.2%	91	37.1%	34	13.9%	68	27.8%
	중	114	14.7%	323	41.5%	138	17.7%	203	26.1%
	하	15	7.3%	72	35.1%	47	22.9%	71	34.6%
경제	상	48	16.6%	91	31.5%	44	15.2%	106	36.7%
	중	125	14.7%	361	42.5%	157	18.5%	206	24.3%
	하	7	7.5%	38	40.9%	18	19.4%	30	32.3%

7. 앞으로 정책시행 방향에 대한 의견

		7. 이번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취소되어야 한다	
		빈도	%	빈도	%
합계		198	16.6%	992	83.4%
성별	남자	117	18.0%	533	82.0%
	여자	81	15.0%	459	85.0%
성적	상	67	28.9%	165	71.1%
	중	107	14.4%	635	85.6%
	하	21	11.2%	167	88.8%
경제	상	53	19.7%	216	80.3%
	중	130	16.0%	680	84.0%
	하	12	14.0%	74	86.0%

8.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의견

-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과부에서 마음대로 내린 결정에 매우 화가 나나다 학생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 학생들도 생각해주세요. 학교를 제발 학원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학원은 사설학원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 지금도 힘든데 0교시 난 맨날 지각하겠네 정책 취소해요. 그리고 맨날 시험만 봐 힘들어 죽겠구만. 이런 거 말고 학교두발 자율화나 추진 좀 해보셈
- 동아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서 각자의 길을 늘린다. 왜 공부만 해야 하냐고! 으아아아아
-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려는 우리 엄마. 혹시라도 열반이 된다면 학원갯수만 늘어날 것 같다.
- 당신들이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가진 적 있나? 형식적으로 생체실험하는 게 교육인가?
- 교육부를 통폐합시켜 교육을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제시한 정책들이 사교육축소 및 공교육 정상화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특히 우열반 편성은 학생간 위화감 조성

함께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전교 1~38등이 한반이라면 나는 일렉기타는 드림을 치는 친구와는 대화할 기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제도는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쨌든 취소되어야 함.

- 우열반 사설모의고사 절대 반대합니다. 우열반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 특히 열반에 속한 학생들은 위화감을 느끼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설모의고사도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제발 머리 좀 쓰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가가 애들 성적에 환장하고 학력에 환장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요. 인성부터 바로잡지 않고는 뭣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 성적에 눈 뒤집혀서 애들 잡을 시간에 인성부터 푹푹히 닦아놔야 자살도, 비행도, 범죄도 없었을 걸요
- 성적도 중요한데, 그 학생들 자체, 그 존엄성과 비전도 그 이상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정책 취소하시고 학생들 성적비관 자살률이나 높이지 마세요.
- 학생들의 개인적 인성이나 자질등은 무시한 채, 무조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이런 정책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런데 신경을 쓰는 것보단 학생개인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을 죽이는 일인 듯, 이 정책이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들게 한다. 효과없다. 이 정책이 모두 실시된다면 자퇴할 것이다.
- 이번 정책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일이라 하는데 나는 그 주장에 대해 과연 교육의 후퇴가 정상화냐고 묻고 싶다. 이번 계획은 개선이 아닌 예전의 일을 반복하는 후퇴일 뿐이다. 세계 흐름에 벗어나는 이런 정책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정말 이대로 한국의 교육이 이런 길로 빠져야 할지 착잡할 따름이다.
- 이명박 정부는 너무 독단적이고 급진적 개혁을 피하려는 것 같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명박 독재정권이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것 같다. 정작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Ⅶ. 설문조사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고등학생 의견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0교시’, ‘우열반’, ‘야간 보충수업’, ‘사설모의고사’ 등을 허용하는 이른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내놨습니다.

교육전문신문 교육희망에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

<주간>교육희망 전화)02-2670-9432

빈칸에 <보기>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거나 문항에 ✓표해 주십시오

D1) 성 별 : ① 남 ② 여

1. 지금 학생이 체감하는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크다 ② 큰 편이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 학습과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최근 1년간 다음의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보기>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1)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2) 가족에게 폭언을 하거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3) 담배를 핀 적이 있다.	
4) 음주를 한 적이 있다.	
5)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다.	
6)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7)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8) 정신과에 가봐야 겠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9) 건강을 해친 적이 있다	
10) 좌절감을 느끼거나 의욕상실에 빠진 적이 있다.	
11) 이유 없이 화가 난다.	

3. 교과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내용이 학생의 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기>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이미 실시하고 있다 ↓	
1) 0교시수업 실시 될 것이다	
2) 우열반이 편성 될 것이다	
3) 야간 보충수업이 실시 될 것이다	
4) 사설 모의고사를 자주 보게 될 것이다	

4. 학생은 이번 정책에 대하여 어떤 의견입니까?

<보기>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 ↓	
1) 0교시 수업 허용	
2) 우열반 허용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5. 이번 정책의 효과등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학생은 다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기> ① 전적으로 동감한다 ② 동감하는 편이다 ③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	
1)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2)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다	
3) 학교생활에 즐거움이 커질 것이다.	
4) 학교 수업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5) 학교가 학원처럼 될 것이다	
6)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 질 것이다.	
7) 입시경쟁교육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8)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9)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커질 것이다	

6. 이번 정책이 학생의 학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 0교시 허용	
2) 우열반 허용	
3) 야간 보충수업 허용	
4) 사설 모의고사 허용	

7. 이번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취소되어야 한다

8. 이번 정책에 대한 학생의 느낌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 성적과 생활수준에 따른 의견차이를 알아보고자 묻는 것입니다.

D 5) 성 적 : ① 상 ② 중 ③ 하
D 6) 생활수준 : ① 상 ② 중 ③ 하